



2024 청년 삶 실태
청년 3명 중 1명 번아웃 경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교회 성가대 실태
- ② 한국 청소년의 남북관계·통일에 관한 인식

2025. 4. 1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청년 3명 중 1명 번아웃 경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

‘한국 청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청년 실업률’이 연관어로 등장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청년을 생각할 때 기대보다는 어려움과 위기를 먼저 떠올리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도 청년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청년 세대를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관계·참여, 건강,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청년 대상 국가 승인 통계다.

조사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번아웃(소진)을 경험했으며, 결혼 계획과 자녀 출산 의향도 2년 전보다 모두 감소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넘버즈 283호>에서는 청년 삶 실태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청년은 국가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다. 이번 보고서가 청년들을 향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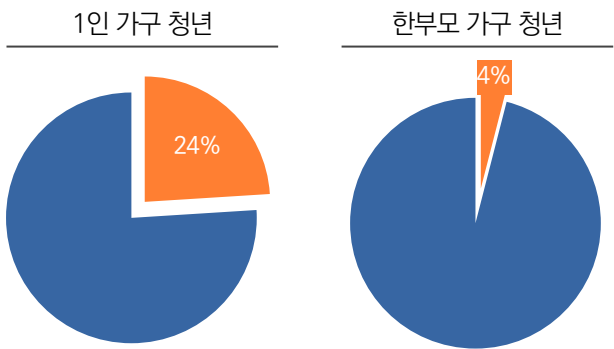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청년 가구 현황] 청년 가구 4명 중 1명, 1인 가구!

- 우리나라 만 19~34세 청년 가구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24%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구 청년은 4% 정도였다.

[그림] 1인 가구 청년 vs 한부모 가구 청년 비율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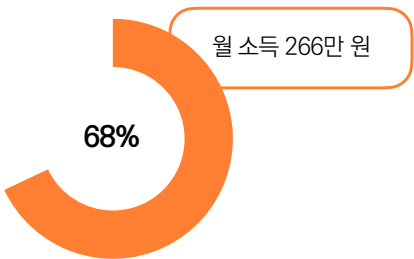
[경제와 일자리] 청년 10명 중 7명 '취업 상태', 평균 월 소득 266만 원!

- 청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개인의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조사됐다.
-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청년 취업자 비율은 68%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월 소득은 세전 기준 266만 원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 원 정도였다.

[그림] 청년의 부채/재산 규모



[그림] 청년 취업자 비율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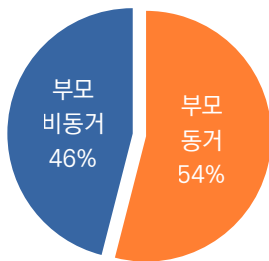
03

[주거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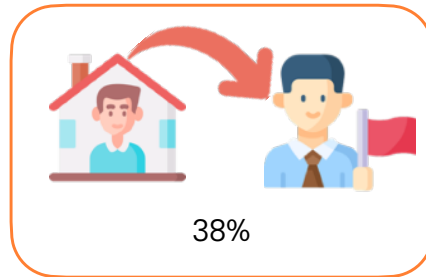
청년 54% '부모와 함께 거주', 독립은 '자산 형성 후'!

- 청년들의 주거환경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본다. 청년 절반 남짓(54%)은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구체적인 독립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38%로 조사됐다.
- 한편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자산 형성한 이후'를 꼽은 비율이 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업 후' 26%, '결혼 이후' 1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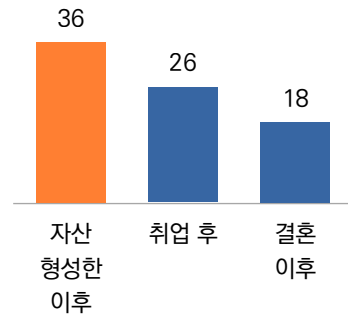
[그림] 부모와 동거 여부



[그림] 구체적 독립 계획 '있음' 비율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그림] 적정 독립시기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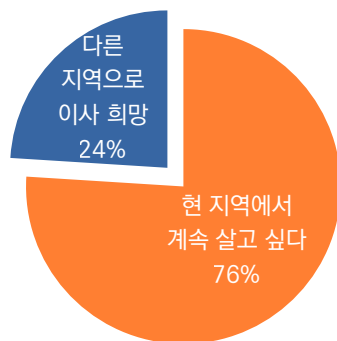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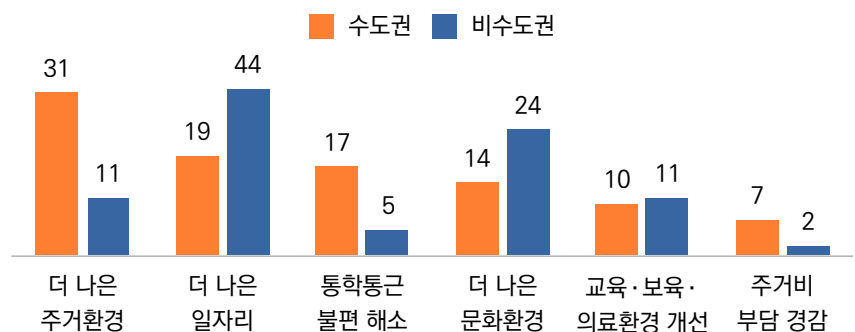
청년 4명 중 1명, '타 지역으로 이주 희망'!

- 청년의 타 지역 이주 의향을 살펴본 결과, '현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76%, '다른 지역으로 이사 희망'은 24%로, 청년 4명 중 1명은 타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 지역 이주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비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문화환경'을 주요 이유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청년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했고, 비수도권 청년은 일자리 기회와 문화생활 여건을 중시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자체별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려면,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기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타 지역 이주 의향



[그림] 타 지역 이주 희망하는 이유* (타 지역 이주 의향자, %)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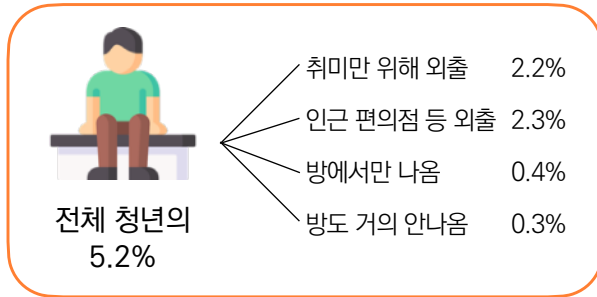
04

[사회적 관계와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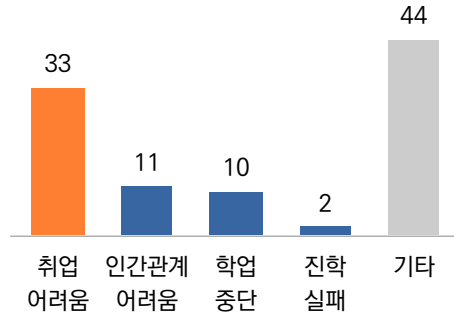
고립·은둔 청년, 청년 20명 중 1명꼴(5.2%)!

- 2024년 기준, 19~34세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2%로 51만 명*이었고, 이 중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은 0.7%로 6만 9천 명* 수준이었다.
-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취업 어려움'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 어려움' 11%, '학업중단' 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고립·은둔 청년 비율



[그림] 고립·은둔 생활하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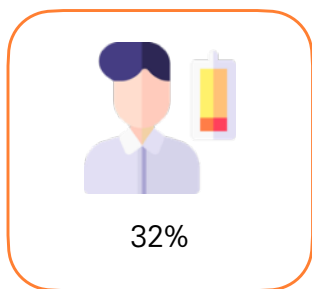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2024년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19~34세; 987만 명) 기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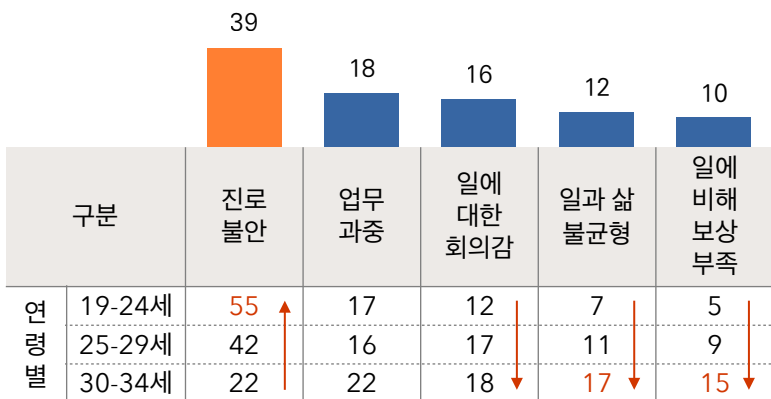
청년 3명 중 1명 번아웃 경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

- 최근 1년간 번아웃(소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가량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 과중' 18%, '일에 대한 회의감' 16%, '일과 삶의 불균형' 12%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 청년은 '진로 불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20대 후반과 30대에 가까워질수록 '일과 삶의 불균형'이나 '일에 비해 보상 부족'을 번아웃 이유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청년 '번아웃' 경험



[그림] 번아웃 이유 (번아웃 경험자,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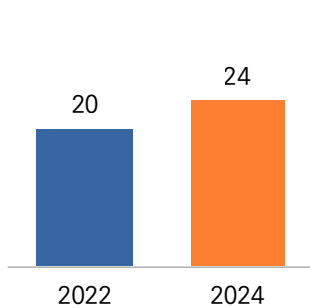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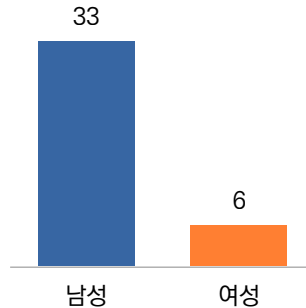
청년 4명 중 1명은 현재 ‘흡연자’!

- 현재 청년들의 흡연율을 살펴본 결과, 2024년 기준 24%로 청년 4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흡연율은 4%p 높아졌으며, 남성이 33%로 여성 6%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그림] 현재 흡연율 (2022 vs 2024, %)



[그림] 성별 흡연율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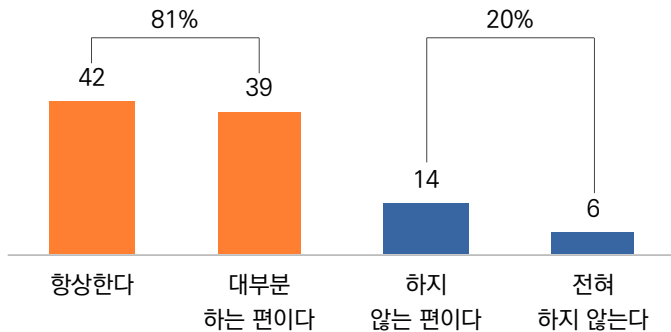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청년 5명 중 1명, 성관계 시 피임 안 해!

-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 중 눈에 띄는 질문이 있어 살펴본다. 청년들의 피임률을 물었더니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 ‘대부분 하는 편’ 39%로 대부분(81%)은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하지 않는 편+전혀 하지 않음)는 비율도 20%로 청년 5명 중 1명은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피임 실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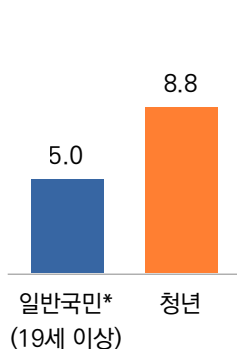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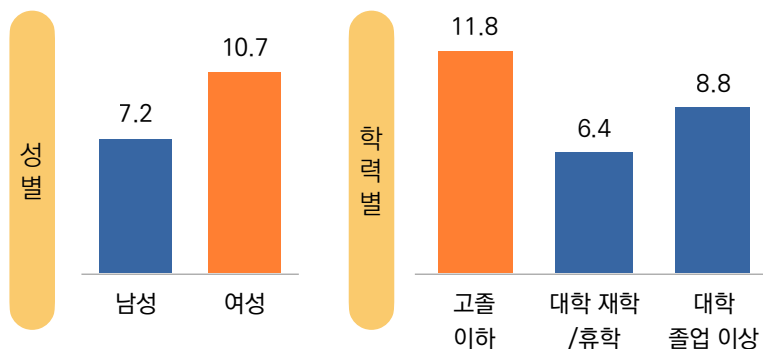
우울장애 유병률, 청년(8.8%) > 일반국민(5.0%)!

- 청년들의 '우울장애 유병률'을 일반국민과 비교해 보았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단순한 우울감 경험이지 아니라, 우울 증 선별도구(PHQ-9) 점수 총합(27점 만점) 중 10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 청년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8.8%로, 일반국민(5.0%)보다 다소 높았다. 청년층 내에서는 남성(7.2%)보다는 여성(10.7%)이, 대학 재학/졸업 이상보다 고졸 이하(11.8%)에서 우울장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우울장애 유병률 (%)



[그림] 성별/학력별 우울장애 유병률 (%)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일반국민 조사 : 질병관리청,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12. (<https://knhanes.kdca.go.kr/knhanes/main.do>)

20대 청년 사망원인의 절반 이상이 '자살'(1위)!

- 청년들의 사망원인으로서는 단연 자살이 1위였고,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는 53%로 절반 이상, 30대도 40%에 달했다. 반면 40~60대는 암이 가장 높았고, 자살은 각각 2위(40~50대)와 4위(60대)로 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5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 (2023)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 53%	자살 40%	암 26%	암 34%	암 40%
2위	암 9%	암 16%	자살 23%	자살 11%	심장 질환 8%
3위	운수사고 7%	심장 질환 6%	간 질환 8%	심장 질환 8%	뇌혈관 질환 6%
4위	심장 질환 4%	간 질환 4%	심장 질환 7%	간 질환 8%	자살 5%
5위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4%	뇌혈관 질환 6%	뇌혈관 질환 6%	간 질환 4%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4.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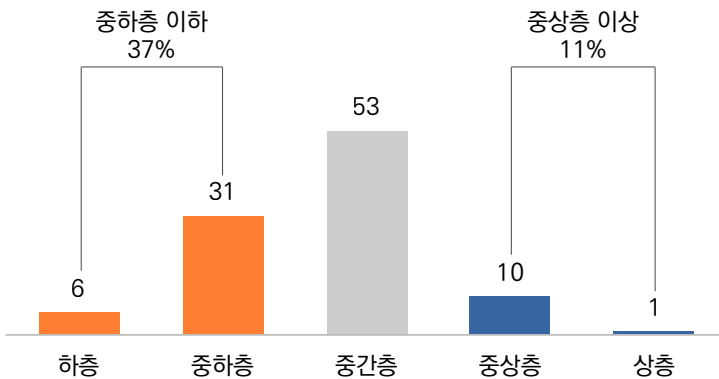
05

[사회 인식]

청년 10명 중 4명, '나의 소득계층은 중간층에도 못 미쳐!

- 청년들은 본인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할까?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소득계층을 묻은 결과, 중간층이 53%로 가장 많았고, '중하층 이하'는 37%로 청년 10명 중 4명가량은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중간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중상층 이상'은 11%에 그쳤다.

[그림]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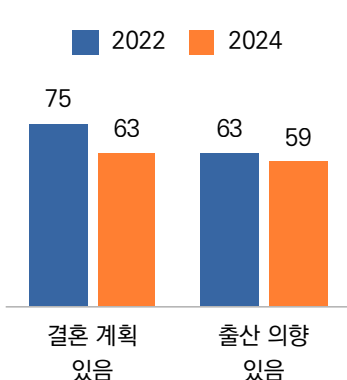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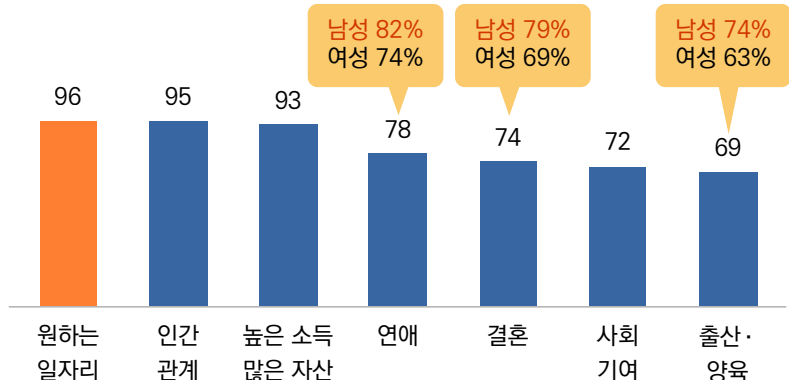
청년의 결혼 계획·출산 의향, 2년 새 뚜렷한 감소!

- 미혼 청년 가운데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2022년 75%에 비해 낮아졌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녀 출산 의향을 또한 같은 기간 63%에서 59%로 감소했다.
-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로는 '원하는 일자리' 96%, '인간관계' 95%,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93%, '연애' 7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연애', '결혼', '출산·양육' 등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결혼 계획·출산 의향* (%)



[그림] 바라는 삶의 요소 ('매우+약간 중요하다' 비율**, 중복응답, 상위 7개, %)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1.

*결혼 계획 : 현재 배우자 없는 청년 기준, 출산 의향: 전체 청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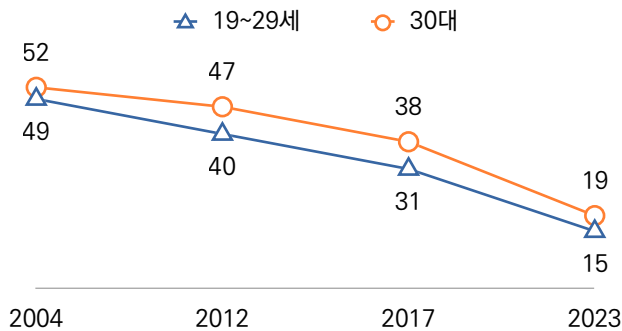
**4점 척도

06

[기독교 청년 인구 변화] 2030세대 종교 인구, 20년 만에 1/3 수준으로 급감!

- 이번에는 20~30대 종교 인구 변화 추이를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2023년 기준 20대와 30대 종교 인구는 각각 15%, 19%로 2030세대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20년 전인 2004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약 1/3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청년층에서 종교 이탈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2030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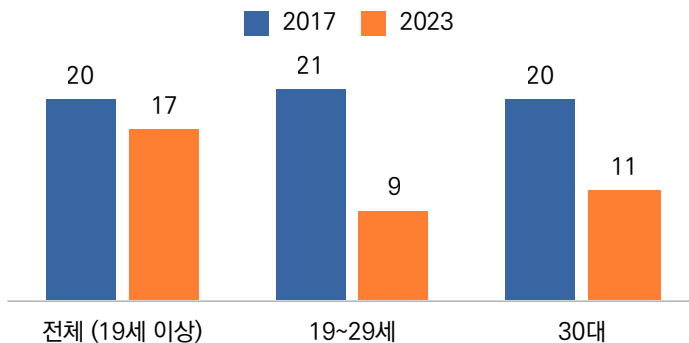


※출처 : 2004~2017년 조사: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각 해당연도 조사/ 2023년 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 2024.01.

2030세대 청년 10명 중 1명만 '기독교인'!

-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만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7%였다. 그러나 20대는 9%, 30대는 11%로 2030세대에 서는 한 자릿수 또는 10% 초반에 그쳤다.
- 한편, 6년 전 조사(2017년)와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모두 기독교인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기독교인 비율 변화 (전체 vs 2030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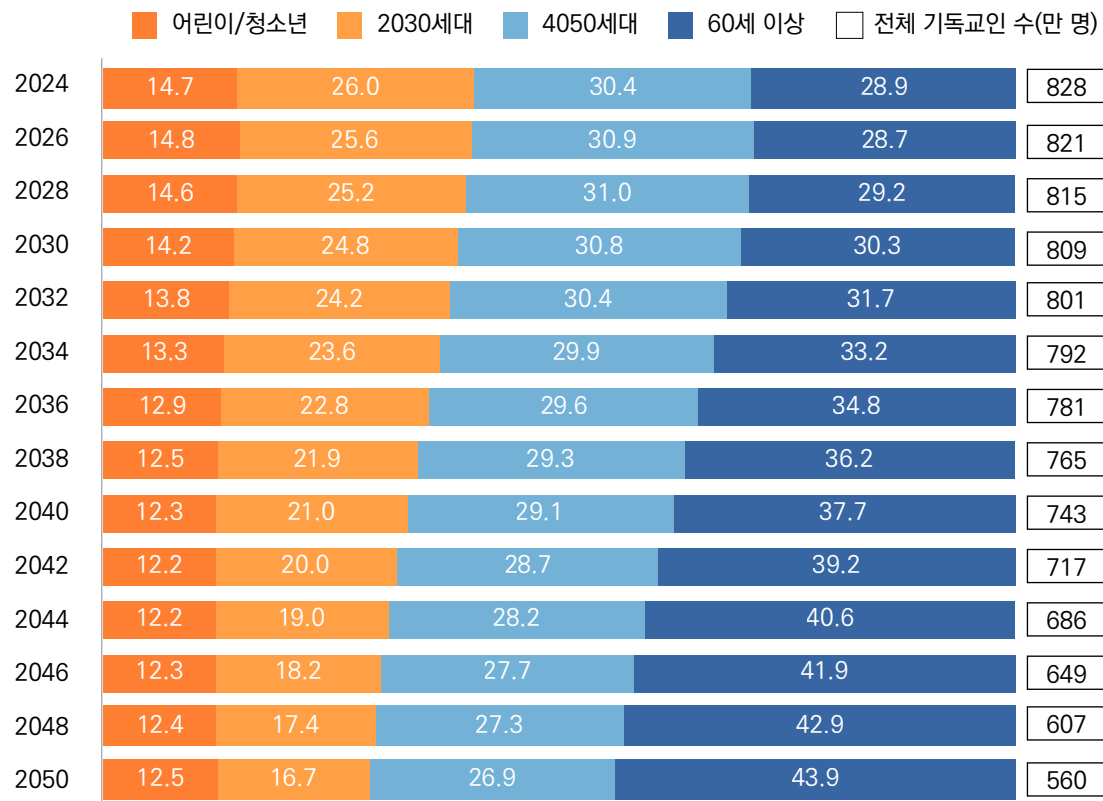


※출처 : 2017년 조사: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18.07./ 2023년 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 2024.01.

2030세대 기독교인, 향후 30년 후 전 세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한교총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요 교단 교세 8개 자료를 근거로 미래 2050년까지 기독교 인구 변화 추이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예측기관 : 연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팀) 아래표는 그 결과이다.
- 2024년 이후 연령별 기독교인 비중을 살펴보면, 20~30대 기독교인의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6.0%에서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16.7%로 10%p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30세대 감소 추세에 따른 한국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림]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 예상 (2024~2050, %)



※출처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 2024.09.10.

이번호 요약

1. 청년 3명 중 1명 번아웃 경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

- 최근 1년간 번아웃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32%)은 번아웃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 불안'(39%) 요인이 가장 컸다.

2. 고립·은둔 청년, 청년 20명 중 1명꼴(5.2%)!

- 2024년 기준, 19~34세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2%로 20명 중 1명(51만 명)으로 조사됐다.

3. 2030세대 청년 기독교인, 6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은 2023년 17%였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9%, 11%로 10% 안팎에 불과했다. 6년 전인 2017년 조사(20대 21%, 30대 20%)와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모두 기독교인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기성세대는 절대 이해 못 하는 2030청년들의 고충 (와이 디스커버리)

관련 성경 구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목회 적용점

청년 세대는 주거 불안, 진로 불안, 경제적 어려움, 정신 건강 악화(고립, 번아웃, 우울, 자살) 등 다양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결혼과 출산 계획은 감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득계층을 중간층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그만큼 청년들은 “삶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자존감 하락이다. 청년 시기의 해결 과제이기도 한 '취업 문제'를 보면 현실은 청년에게 녹록하지 않다. 더 좋은 일자리와 취업을 위해 애쓰지만 현실과 욕구·희망 사이의 갭은 크다. 실패와 좌절감이 반복되면 이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에 따라 독립·자립하려는 의지도 꺾이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꺼리게 하며, 번아웃 혹은 청년으로 하여금 고립·은둔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 교회가 청년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청년이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개교회마다 청년 소그룹 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삶을 전체적으로 돌보는 '전인적 제자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령 '청년기'에는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진로 결정, 연애·결혼 준비, 신앙의 확립, 사명의 발견이 과제인데, 이에 맞는 세미나, 말씀 훈련, 정서/심리적 지원 등을 교회 규모와 사정에 맞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교회 성가대 실태
2. 한국 청소년의 남북관계·통일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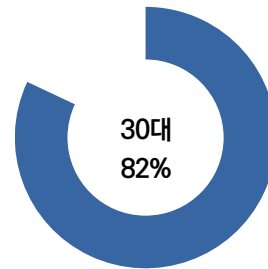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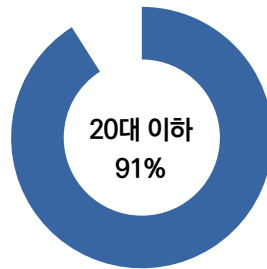
[한국교회 성가대 실태] 교회 대부분, 2030성가대원 10명 중 1명도 안돼!

- 최근 이상일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신학과실천’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성가대의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한국 성가대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본다.
- 먼저 주일 장년 예배 성가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교회의 80%가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가대원 중 젊은 대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 대원과 ‘30대’ 대원이 10% 미만인 교회의 비율은 각각 91%, 82%로 사실상 대부분 교회에서 2030세대 성가대원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가대 운영하는 교회 비율
(주일 장년 예배 기준)



[그림] 20대 이하·30대 성가대원이 ‘10% 미만’인 교회 비율



※출처 : 신학과실천, ‘한국교회 성가대의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이상일 장로회신학대 교수), 2025.02.

성가대의 가장 큰 위기 요인, ‘젊은 세대 참여 부족으로 인한 고령화’!

- 성가대의 위기 요인으로서는 담임목사와 지휘자 모두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고령화’를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2순위부터는 견해 차를 보였는데 담임목사는 ‘교인 수 감소로 인한 대원 충원의 어려움과 예산 감축’(2위, 57%)을 1위와 엇비슷한 비율로 응답했고, 이어 ‘찬양팀 중심의 현대적 예배 확산으로 인한 성가대 역할 축소’(38%)를 3위로 선택했다.
- 반면 지휘자의 경우 ‘성가대원의 고령화 문제’를 1위, ‘현대적 예배 확산으로 인한 성가대 역할 축소’를 2위로 응답했다.

[표] 한국교회 성가대 위기 요인 (상위 3개,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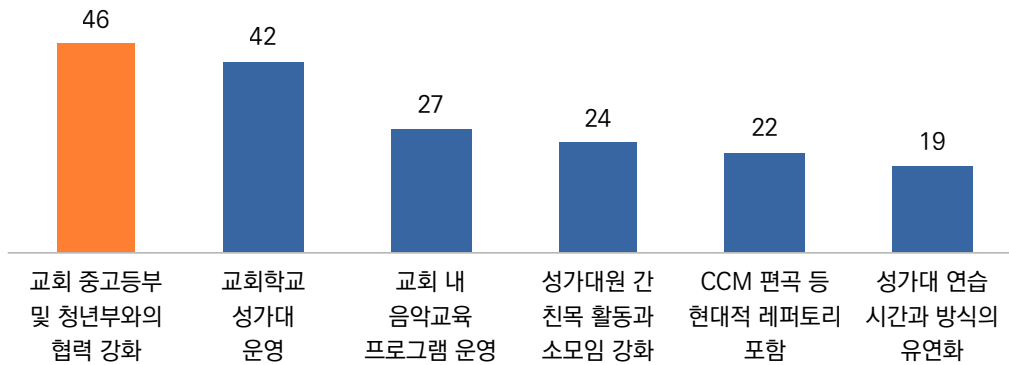
	담임목사	지휘자
1위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고령화 (58%)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고령화 (61%)
2위	교인 수 감소로 인한 대원 충원의 어려움과 예산 감축 (57%)	찬양팀 중심의 현대적 예배 (CCM과 밴드 중심) 확산으로 인한 성가대 역할 축소 (39%)
3위	찬양팀 중심의 현대적 예배(CCM과 밴드 중심) 확산으로 인한 성가대 역할 축소 (38%)	성가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 부족 (36%)

※출처 : 신학과실천, ‘한국교회 성가대의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이상일 장로회신학대 교수), 2025.02.

젊은 세대 성가대 참여 높이는 방안, ‘중고등부/청년부와 협력 강화’!

- 젊은 세대 성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지휘자들이 꼽은 1위는 ‘교회 중고등부 및 청년부와 협력 강화’(46%)였다. 교회 내 세대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어 ‘교회학교 성가대 운영’ 42%, ‘교회 내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27% 등의 순이었다.

[그림] 젊은 세대 성가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휘자, 복수응답,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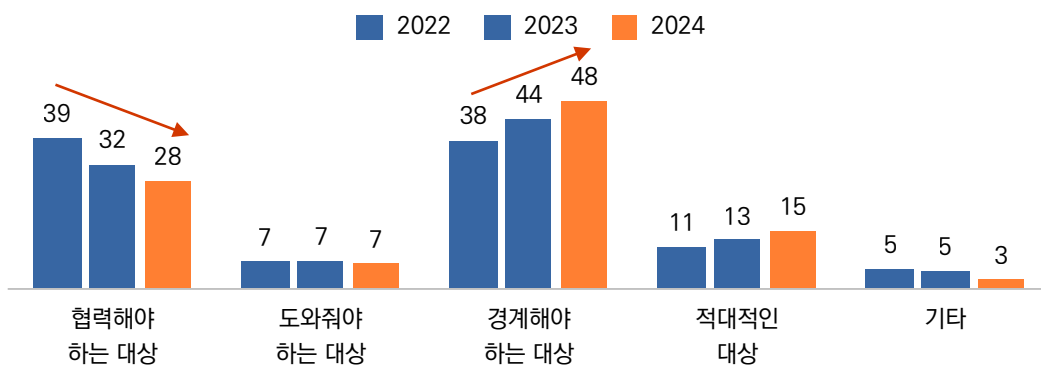
※출처 : 신학과실천, ‘한국교회 성가대의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이상일 장로회신학대 교수), 2025.02.



[한국 청소년의 남북관계·통일에 관한 인식] 한국 청소년 3명 중 2명,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인식

- 통일부에서 올해 4월초에 발표한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남북관계·통일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48%로 청소년의 절반은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나라로 인식했다. '적대적인 대상' 15%까지 포함하면 북한에 대해 경계·적대 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청소년 3명 중 2명가량이었다. 그외 '협력해야 하는 대상' 28%, '도와줘야 하는 대상' 7%로 나타났다.
- 2022년 이후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경계' 또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북한에 대한 인식 (초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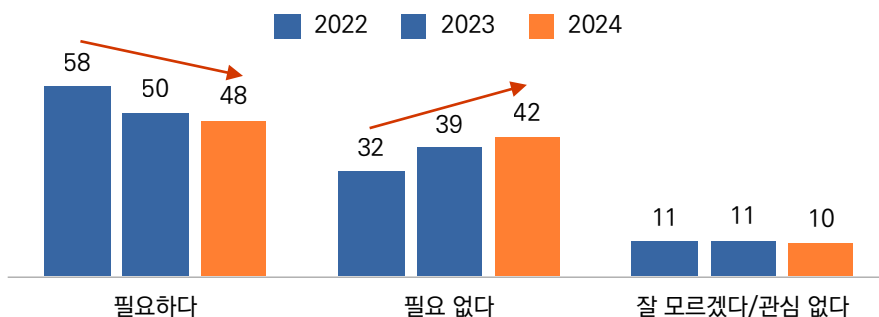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담긴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2025.04.04.(초(5~6학년)·중·고 775개교 총 79,706명, 온라인 조사, 2024.10.21.~11.15)

학생들의 통일 공감대,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

-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통일의 필요성을 묻은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58%에서 2024년 48%로 10%p 떨어졌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동일 기간 32%에서 42%로 10%p 올랐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림] 통일의 필요성 (초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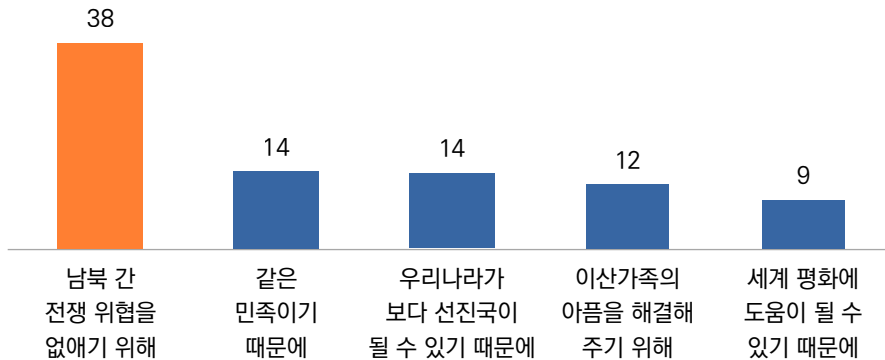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담긴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2025.04.04.(초(5~6학년)·중·고 775개교 총 79,706명, 온라인 조사, 2024.10.21.~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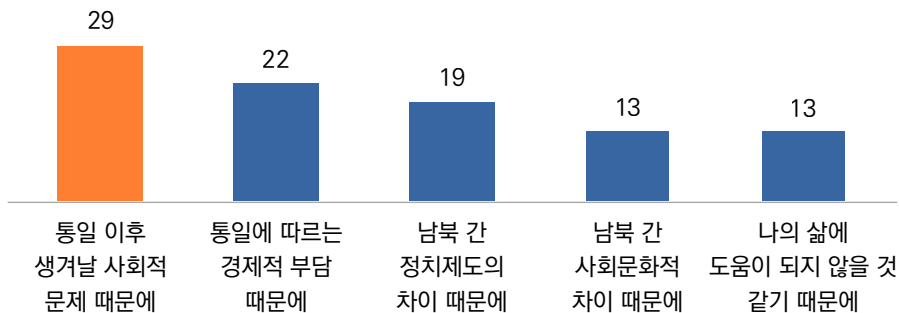
학생들이 꿈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 : 남북 간 전쟁 위협 제거!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14%,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12% 등의 순이었다.
- 통일이 필요없다고 본 이유로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에’(29%)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22%,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 때문에’ 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통일이 필요한 이유 (2024,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상위 5개 %)



[그림] 통일이 필요 없는 이유 (2024,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 상위 5개 %)



※출처 : 통일부 보도자료,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담긴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2025.04.04.(초·중·고 775개교 총 79,706명, 온라인 조사, 2024.10.21.~11.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9호 \(2025년 4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통령 탄핵안 인용,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0호 \(2025년 4월 2주\)](#)

- 탄핵 심판 결과 평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 헌법판소 탄핵 심판 수용 정도 등

사회 일반

[서울시민 “70세부터 노인”… 88%가 정년연장 찬성](#)

동아일보_2025.4.10.

["옆집 35세 자식은 부모에 얹혀산다"...10명 중 4명이 이렇다](#)

중앙일보_2025.4.14.

["부모 3명 중 2명,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 책임"](#)

연합뉴스_2025.4.9.

[로스쿨 합격생 과반이 SKY 출신...5명 중 1명은 서울대 졸업생](#)

연합뉴스_2025.4.13.

['마쳐 세대' 또 위험신호...49세에 직장 뜬다, 조기퇴직 2.5배](#)

중앙일보_2025.4.14.

["정년 60세 연장, 고령 근로자 1명 늘 때 청년은 0.4~1.5명 줄어"](#)

조선일보_2025.4.8.

[여성 징병제, 남성 69% 찬성한다... 여성은?](#)

조선일보_2025.4.13.

[정치 혼란이 강성 지지자를 키운다\[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동아일보_2025.4.13.

[“제 사진 좀 지워주세요…” 작년 1만명 디지털 성범죄 공포](#)

국민일보_2025.4.10.

[\[기획\]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위기 - 국민이 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4.8.

[남 “결혼비용 부담돼서”… 여 “기대 맞는 상대 없어”](#)

국민일보_2025.4.14.

아동 · 청소년 · 청년

[빨리빨리에 지친 마음… '다도'로 다독이는 2030](#)

조선일보_2025.4.1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어르신에게 '이선좌' 띄우는 사회](#)

중앙일보_2025.4.14.

경제 · 기업

[텅텅 빈 상가들...10곳 중 1곳, 3년 내내 공실을 20% 넘었다](#)

중앙일보_2025.4.8.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선공약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연합뉴스_2025.4.13.

[Z세대 구직자 65% "정년퇴직보다 중간휴식 갖고파"](#)

동아일보_2025.4.11.

[옛날 대기업 아니다...직원 10명 중 1명 "근무중 이직 준비" 왜](#)

중앙일보_2025.4.14.

국제 · 환경

["미국인 75% '관세정책으로 단기간에 물가 상승할 것'"](#)

연합뉴스_2025.4.14.

["외로운 죽음 2만2000명"...일본 고독사 80%가 남성이었다](#)

중앙일보_2025.4.12.

건강

[혈당 관리 및 저속노화 트렌드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4.10.

["몸에 유익한 과일...주스로 갈아 마시는 건 최악의 선택"](#)

연합뉴스_2025.4.14.

['느린 아이'의 치료비 전쟁... 누가 책임져야 하나 \[조금 느린 세계\]](#)

조선일보_2025.4.11.

기독교 · 종교

[불교박람회 가서 '출가상담' 받았습시다... 풀소유 말고 무소유는 어떨까요](#)

동아일보_2025.4.12.

[교회 떠나는 독일인 "십일조 부담돼서요"](#)

조선일보_2025.4.11.

[1913년 첫 파송... 선교사 수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하다 2020년 이후 꺾여](#)

국민일보_2025.4.15.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명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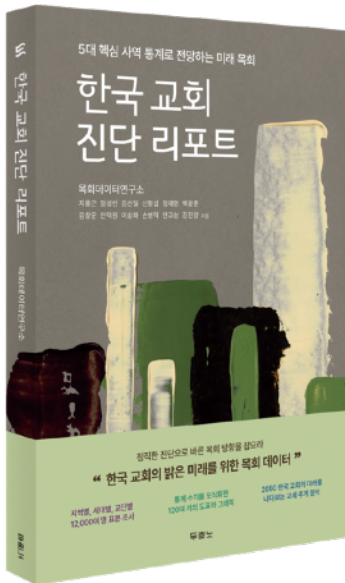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